

영진축제

1. 네 일단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연령대나 이 대나무 산업 종사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50살 되고 지금 한 지는 한 20년 정도 여기서요.

여기서만 담양에서 지금 20년 좀 넘었어요.

1. 그러면 이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2. 지금 이제 아버님 하시던 거를 이어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도소매 장사를 하고 있죠.

1. 그러면 도소매만 하시는 건가
2. 예 주로 여기는 도소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가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담양에서도 박물관에서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명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제자 구성하는 쪽으로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소매로 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전달해 주는 편이에요.

그쪽에다가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원자재는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 주도 받고 계십니까?
 2. 이제 중간 도매상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해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넘기고 여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분류를 작업을 해요.
- 저희는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1. 그러면 그 중간 도매상 통해서 오는 대나무가 담양에서 생산되는건가요?
2. 담양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주로 지리산 자락으로 해서 담양에서부터 하동 진주 사천까지 그쪽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1. 중국산은 없고 국내산이죠
2. 네 지금 담양 관내에는 다 국산으로만 담양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구례 하동 진주 사천 그쪽에는 대나무가 나오거든요.

네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다 거기서만 조달해서

1.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이제 대량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물건이 아니라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수송 기간이 길어요.

그거 오는 동안에 뭐냐 좀벌레도 생기기도 하고 여름에는

1. 상태가 변질되서요
2. 변질되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우리는 또 식당에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개네들은 컨테이너 바다 건너서 오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너무 길어서 많이 변질되죠.

- 1: 그러면 대나무 원자재 조달 및 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2: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로 겨울에 작업을 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죽순 올라오면 이제 작업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로 키워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너무 연하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 하면 다 상해버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좀 짧은 기간에 수량 확보하기가 힘들죠.

겨울에만 주로 작업을 많이하니까

- 1: 아 겨울에만 하고 그 외에 기간에는

- 2: 이제 보관해 놓은 거를 판매하는 식으로

- 1: 그럼 이게 국가 전체의 대나무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이 단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 2: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은 거의 많이 사양 사업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용처들이 많이 줄었고 옛날에는 바닷가 양식장에서 김 양식장 같은데 그런 곳에서도 해마다 바뀌가면서 그냥 썼는데 지금은 대나무 자체를 코팅을 해서 몇 년씩 써버리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건설 쪽도 조경산업이 한참 들어가면은 많이 나가는데 건설 자체도 안 좋으

니까 지금은 조경산업도 많이 안 나간 편이에요.
인테리어는 고급화 돼 있으니까 조금 나가긴 하는데 드물어요.
이제 작업 수작업을 많이 거쳐가지고 불로 굽는다든지 해가지고 판매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양은 아니죠.
실내나 실외 인테리어 이용 하는 거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게 이 사업이

1: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이제 되도록이면 비 안 맞추려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나무니까 이것도 생물이자 보니까 썩어버리니까 상하로 나눠 가지고 상품 같은 경우는 창고 안에다 넣고 보관을 하면서 좀 비를 안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금방 바로 나갈 것 같은 경우는 두세 달은 괜찮으니까 그냥 밖에다 햇빛 안 보게 해서 관리하는 편이죠.
대나무는 햇볕 보면 다 변질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벌레 생긴다고 해서 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1: 그러면 그런 거 말고는 따로 특별한 기술같이 처리하는 건 없는 거죠.

2: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예용으로는 열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산 높은 온도로 직접 불을 해가지고 굽는다든지 아니면 물에다 표백제 넣고 삶는다든지 가공해가지고 제품 만드는 거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도소매로 해가지고 대나무 자체만 판매하니까 원물로 이렇게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1: 그러면 제품을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로 어떤 유통 채널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2: 이제 직접 판매하거나 대부분 직접 판매하는데 기존에 이제 하던 고객들이 아시는 고객들이 이제 같은 업종인 사람들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소개를 해 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요즘은 한옥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하거나 그런 분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쓰는 물품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소개로 연락받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죠.

1: 그러면 따로 온라인 같은 거는

2: 전에는 온라인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서

1: 따로 막 온라인 했을 때 효과는 미미한 편인가요

2: 네 미미하죠

1: 그러면 현재 대나무 제품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은 뭐니까?

2: 아무래도 그냥 전화를 통해서 그거 하고 저도 이제 뭐냐 저 스마트 스토어도 좀 하고는 있는데 거의 사용은 안 되더라고요.

1: 스마트스토어요

2: 네 스토어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판매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기에서 찾는 사람들은 캠핑용으로 조금씩 대통이나 삼겹살 구워 먹겠다.
밥을 한번 놀러 간 김에 그거 보려고 이제 찾는 분들이라서 소량에다가 그러니까 드문드문 어찌다 있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

1: 그러면 제품 판매 후에 고객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 같은 게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2: 아니요. 이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한 번 딱 나가면 물건이 팔리면 그걸로 끝인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용처에서 딱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 처리할 것이 없어요.

1: 중간 어차피 도매 이거기 때문에

2:네

1: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대나무 산업 관련 정책적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2: 전혀 없죠. 지금 이게 박물관에서 해가지고 기계를 몇 대 이제 저렴하게 구매해 보긴 했는데 구매할 때는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에 세척 대나무 세척해가지고 판매하고 하려고 보조금 받고 해가지고 받긴 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인테리어용 나가지 않으니까 있어도 받은 게 있긴 한데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면 그게 지원받은 게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군청 쪽입니까?

2: 그게 군하고 박물관에서 서로 해가지고 연계돼 연계돼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식으로 얼마 하고 자부담 얼마 하고 해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게 취지는 좋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몇 년 전에 했어요.

그것도 지금 지원받은 지가 한 4 5년 됐나 해가지고 했는데 먼지만 쌓이고 있죠.

지금은

1: 그러면 지원금의 취지 자체는 좋으나 현재 경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2: 네

1: 대나무 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고 보십니까?

2: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도매상들이 가져온 거는 거기에서 또 저희가 여기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근데 물건이 품질은 아무래도 나가는 게 더 많지 안 좋은 게. 이게 옛날만큼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1: 베어 오는 대로 납품하니까

2:

베어 오는데 옛날에는 대 값은 대나무 자체는 그때 옛날 수준에 비하면 비쌌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많이 베어야지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품질은 떨어지죠.

이렇게 대나무 발을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1:

발 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2: 그러니까 갈수록 품질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조금 여기서 이제 또 선별을 하면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화학품이 많이 나오죠.

저희는

1: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에 비해서 안 좋아진 것 같으세요?

2: 지금은 품질 자체는 10년 전부터 질이 떨어지긴 했어요.

1: 10년 전부터 이제

1: 그러면 대나무 산업 관련 정보나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2: 그러죠. 이거는 저 개인 대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누구 대밭인지도 모르고 동네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돼.

일일이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건이 좋은 대밭이 있어도 주인이 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구매를 못하

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1: 이렇게 발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구매를 못하거나 알아도 타지에 있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거죠

2: 네

1: 대나무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2: 노령화죠 이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저 내 나이대도 지금 50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고령화돼 있으니까 제가 3 4년 전에도 한 70세 이상까지도 막 현장 가서 작업하고 하셨는데 그 분들도 이제는 힘이 딸리니까 아예 못하시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자체가 그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그냥 인력사무소에서 데려다 쓰지는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적자 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1: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보통 가족단위로 하시나요?

2: 네 저희도 가족 단위로 전에 한 3~4년 전만 해도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사람이 또 없으니까 아예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중간 상인들한테 받아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대나무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거는 너무 일이 힘들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거의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대나무 가격이 올랐냐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은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면 왜 그러냐면 인건비 오른 건 계산 안 하고 물건 자체가 저렴하게 그냥도 막 가져가는 물건인데 왜 비싸냐 그러면 안 팔리니까 또 가격도 못 올리고 마구잡이식으로 막 베어가지고 오는 거 거기서 선별해서 좋은 거 팔면은 또 양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죠

1: 현재 우리나라 대나무 육림 기술 및 가공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 재배기술.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라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마구잡이 그냥 베어가면 베어가고 따로 막 비료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관리를 하니까 막 대밭에 뭐 왕겨 같은 것도 깔고 막 그랬는데 뿌려주고 하면은 더 잘 자라고 그리고 반듯하게 키우려고 신경을 쓰면서 안 좋은 것들을 미리 베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가공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죠.

지금 뭐 칫솔도 만들고 다들 그거 하니까 담양에서도 도마나 칫솔 그런 거 하시는 공장도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가공 같은 경우는 바구니나 그런 거는 지금은 고급화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양을 안 해요.

이 엄청 비싸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중국산 싸게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원래 하시던 분들도 다 손 놔버리죠.

바구니 이 주로 바구니나 아니면 대나무로 등 같은 것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입 싼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담양에도 지금 대나무 돗자리 하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몇 군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한 군데에서 거기서만 하시고 그것도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리니까 품질은 좋은데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

1: 원자재 같은 거는 바다 넘어서 오니까 국산을 쓰지만 그런 제품 완성이 돼 있으니까 싼 거를 지금..

2: 지금 원자재도 옛날에는 싸가지고 중국산 해가지고 바다 매립 사업에서는 중국산을 쓴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국산도 쓰긴 하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원자재나 여기 국내산이나 수입해서 쓰는 거나 지금은 대나무 자체가. 근데 가공한 거는 원체 그쪽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베트남 중국산 다 들어오니까

1: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왕겨도 뿌리고 막 처리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술이 더 안 좋아진 거죠

2:
재배 기술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1: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유통만 하는 상태인건가요

2:
그렇죠. 그나마 관광지 안에 대밭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하는데 관광지요 예 죽녹원 안에 대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책로랑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일반은 안 해요. 거의

1: 그러면 혹시 제품 다변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2: 여기서는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그냥 도소매 위주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은 이제 가공하신 분들이 주로 칫솔 만들고 그런 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하시는 편이고 지금은 뭐 악세사리나 애들 장난감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돗자리 만드시던 분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오히려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악세사리랑 그런 장난감 생각하고

1: 그러면 새롭게 개발되거나 시도 중인 제품 분야가 있나요

2: 아니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것도 박물관이나 그쪽에서는 좀 신경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예쪽

1: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원이나 어떤 지원이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나마 지금 담양 같은 경우는 저 그걸 해요. 명인들한테 제자를 키우도록 격려해가지고 많이들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양성해가지고 옛날에 라탄 공예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죽공예를 배워가지고 많이 사용하세요 대나무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그분들한테 적은 양이나마 판매를 하거든요. 이제 대나무를 우리가 우리는 대나무만 무조건 신경 써서 좋은 걸 골라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박물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자들을

1: 제자 양성 같은게 중요한거죠?

2: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예 없었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10년 15년 전부터인가 해가지고 양성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대나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 이제 아무래도 타 지역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상인들을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한다거나 주로 지금은 이쪽에 담양 관내에서 하는 사람은 한 두 팀밖에 안 돼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동이나 진주까지 가가지고 직접 상인들 만나서 서로 필요한 물건들 그냥 조달하는 거죠.

지금

1: 담양에는 그런 분들이 두 팀인가요

2: 네 두 팀 정도밖에 없어요.

1: 그러면 이렇게 생산이나 가공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도입 시 어려운 점은 있습니까?

2: 지금 사실 저희 이거는 기계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게 좀 기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나무 자체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비슷한 물건들이 있어도 크기에서 차이 나니까 가격이 확 오르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나무 이렇게 쪼개주는 물건들도 뭐 긴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게 한 6m 7m 쪼개 달라고 근데 그런 경우 길게 맞추려면 좀 비싸게 맞춰지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단순한 기계인데 들어가는 자재가 길이가 길어지니까 비싸져 가지고 2~300만 원 차이 나니까 막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1: 그럼 따로 기계가 상용화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에 맞춰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따로 대부분

1: 입력 조달 측면에서 특별히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2: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사람이 없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서 못 하고 이게 아무래도 힘들고 다치기 쉽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기는 힘들고 전문적으로 하셨던 잘하시던 분들은 나이 드셔서 이제 못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앞으로 해봤자 몇 년이나 하겠냐 내가 그런 생각이지

1: 그러면 개선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무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써야 되는데 저희도 중국 사람 써봤는데 중국 사람은 그만큼 인건비가 안 나오고 일을 안 하니까

1: 인건비 대비 일하는 수준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죠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상태도 그리고 대부분 나이대가 거기도 이런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60 넘어가지고 막 다들 그러니까 금방 지쳐서 못 하더라고요.

1: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 상태가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안 좋으니까 다들 찾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죠.

물건 필요한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사업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뭐 필요한 데서 찾아가 뭐냐 갖다 쓰는 것밖에 없는데 건설 안 좋으면 조경도 안 좋아지고 막 줄줄이예요그냥

1: 다 연결돼있어서..

2: 그렇죠 연계돼 있어서

1: 그럼 이게 따로 막 대나무 분야에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런 연계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업 전반적으로..

2: 전반적으로 좋아야지 이게 나가지 매출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요.

1: 아 경기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2: 계절마다 사용하는 물건들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 여기 고창에서 뭐 밭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채소 가꾸는데 겨울 뭐냐 초봄에 일찍 심어서 바람 안 맞게 이렇게 터널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대나무를 쓰긴 써요. 거기서도 근데 그쪽에서 뭐가 안 맞아서 올해 그 채소들을 안 심는
다? 그러면 저희도 안 되는 거고

1: 다 연계돼있네요

2: 그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배추가 값이 너무 싸가지고 사람들이 그
쪽에서 안 지어버린다 그러면 이쪽도 사용을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심었는데 쓰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해는 또 배추가 값이
좋아 갖고 그다음에 또 몽땅 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 뭐냐 주문을 해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데 그거 작년에 괜찮으니
까 올해 괜찮겠지 그랬다가는 또 크게 한 번 받고 때에 따라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다 좋아야지.

이거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